2017. 12.
Vol.38

NYPi Bluenote
블루노트 통계 Statistics

청소년의 학습습관 통제능력, 성적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1)]
- KCYPS 초 4패널 -

정은진 부연구위원 eunjin@nypi.re.kr
정윤미 전문연구원 whandym@nypi.re.kr

개요

조사명 ▶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KCYPS) 초4패널 조사

조사목적 ▶ 우리나라 아동 ·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성장 · 발달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각도로 포착하여 아동 · 청소년정책 수립에 실효성 있는 기초자료 제공

조사대상 ▶ 2010년 기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의 3개 패널(이하 각각 "초1 패널" "초4 패널" "중1 패널")로 구성, 총 7,071명(초1 2,342명, 초4 2,378명, 중1 2,351명) 중 초4 패널을 대상으로 함.

조사설계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동일한 조사대상을 7년동안 추적하는 패널조사로 설계되었음.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자기기입식 조사

조사항목 ▶ 개인발달: 신체발달, 지적발달, 사회정서발달, 진로계획, 비행, 생활시간 등
▶ 발달환경: 가정환경, 친구관계, 교육환경, 지역사회환경, 매체환경, 활동 · 문화환경 등

조사기간 ▶ 매년(2010년 ~ 2016년) 10월 ~ 12월

1) 본 고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년 고유과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Ⅷ'의 데이터분석 보고서 중 일부 분석 내용을 포함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종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분석 배경

- 최근,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 '그릿(Grit)'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릿'이란 개인에게 요구되는 비인지적 능력 중의 하나이며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인내와 열정을 의미함(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 그릿(Grit)이 높은 사람은 목표를 이루어 가는 과정 중에서 겪게 되는 여러 실패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도전하고 노력함. 이에 그릿이 강한 사람은 성취를 위한 과정을 마라톤으로 여기며 강한 지구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Duckworth et al., 2007).
-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에서 측정된 학습습관과 관련된 행동통제능력(self-control)은 그릿(grit)의 개념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함. 통제능력(self control)과 그릿(grit)이 완전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바는 기존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으며(Duckworth et al., 2007), 통제능력과 그릿 모두 개인의 성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함(Duckworth & Seligman, 2005; Moffitt et al., 2011; Duckworth & Gross, 2014 재인용).

2 선행 연구

- 기존 연구된 바에 따르면 개인의 통제능력은 학업 성취도와 삶에 대한 만족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통제능력과 학업 성취도
  - 통제능력이 높으면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제시간에 맞추고 노는 시간을 줄이며, 공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함. 또한 개인성과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감정적 소모를 하지 않게 되므로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타남(cf., Tangney, Baumeister, & Boone, 2004). 이와 같은 이유로 통제능력이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음.

통제능력과 삶의 만족도

- 통제능력이 강하면 외부 환경 및 삶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여겨 본인이 선택한 행동이 그에 합당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음(Rotter, 1966; Fiori, Brown, Cortina & Antonucci, 2006 재인용).
- 이에 통제능력이 강한 사람은 자기 확신이 높고 희망적인 성향을 가지는 반면, 통제능력이 약한 사람은 문제에 직면할 경우 해결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의기소침해 짐(Mirowsky & Ross, 2003; Fiori et al., 2006 재인용).
- 또한 통제능력이 강한 사람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반면, 통제능력이 약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건강하며 삶에 대한 불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Phares, 1976; Presson & Benassi, 1996; Watson, 1998; Ng et al., 2006 재인용).

3 분석 목표

본 연구는 그릿(grit)과 유사한 개념인 한국 청소년의 '학습습관과 관련된 행동통제능력'이 청소년의 학업 성적에 대한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와 비슷한 변화추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긍정적 연관성을 갖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첫째, 학습습관과 관련된 행동통제능력, 학업 성적에 대한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한 종단적 변화 추이를 평균값을 토대로 살핌.
- 둘째, 학업 성적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집단 별로 학습 습관 관련 행동통제 능력 평균값에 차이가 있는지 t검증을 통해 차수별로 확인함.
- 셋째, 삶에 대한 만족감의 평균값과 학습 습관 관련 행동통제 능력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차수별로 확인함.
- 넷째, 삶에 대한 만족감을 측정한 문항을 토대로 행복한 집단과 행복하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집단 별로 학습 습관 관련 행동통제 능력 평균값에 차이가 있는지 t검증을 통해 차수별로 확인함.

4 청소년 학습습관 통제능력의 종단적 변화

- 학습습관과 관련한 통제능력은 학업이 지루하게 느껴질지라도 끝까지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집중하는 성향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학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유혹 및 장애를 벗어나 학업에 몰두하기 위해 행동을 통제하는 정도를 의미함.
- 이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다음과 같이 총 5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해당 문항은 다음과 같음. '나는 공부가 지루하고 재미없더라고 끝까지 다한다', '나는 하던 공부를 끝낼 때까지 공부에 집중한다', '나는 공부가 지루해도 계획한 것은 마친다', '나는 노는 것을 그만두지 못해 공부를 시작하기 어렵다(역)', '나는 공부를 하려면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집중을 못한다(역)'. 이에 4점 척도('1.매우 그렇다~4.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고 5개의 문항 중 2개 문항은 의미를 역으로 해석하는 문항으로 이 문항들을 제외하고 3개 문항을 역코딩('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함.
- 차수별로 5문항의 신뢰도가 높았으므로(0.70이상) 5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통제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함.
- 1차(2010년), 3차(2012년), 5차(2014년), 6차(2015년), 7차(2016년)에 측정된 초4 패널의 행동통제 변화는 그림 1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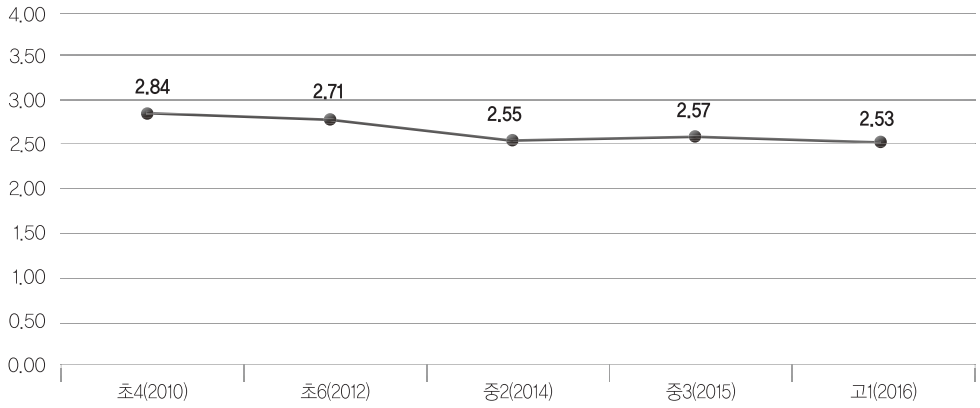


그림 1 학습습관: 행동통제의 종단적 변화

– 변화율은 크지 않으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초등학교 4학년 때의 행동통제는 2.84, 초등학교 6학년 때는 2.71로 나타남. 중학교 2학년 때는 2.55로 감소하였으며, 이후 중학교 3학년 때는 2.57로 증가하였으나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2.53으로 소폭 감소함.

▩ 성별에 따른 행동통제 변화의 정도는 표 1과 같음.

표 1 학습습관: 행동통제의 종단적 변화

구분	1차 (2010년)	3차 (2012년)	5차 (2014년)	6차 (2015년)	7차 (2016년)
남자	2.77 (0.57)	2.74 (0.54)	2.60 (0.53)	2.61 (0.54)	2.59 (0.55)
여자	2.93 (0.56)	2.69 (0.53)	2.51 (0.53)	2.53 (0.53)	2.47 (0.53)
전체	2.84 (0.57)	2.71 (0.54)	2.55 (0.53)	2.57 (0.54)	2.53 (0.54)

*주: ()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 행동통제의 정도는 1차 년도를 제외하고는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 · 녀 모두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각 조사 차수별 행동통제 증감은 남자와 여자 모두 같은 패턴으로 5차 년도까지 감소하였다가 6차 년도에 증가하였으며, 7차 년도에 다시 감소함.

5 청소년 학업 성적에 대한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 학업 성적에 대한 만족도 '학생은 자신의 학교 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합니까?'라는 질문에 4점 척도(1: 매우 그렇다~4: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역코딩(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진행함.

▩ 2차 년도(2011년)부터 7차 년도(2016년)까지 매년 측정된 학업 성적에 대한 만족도의 변화 추이는 그림 2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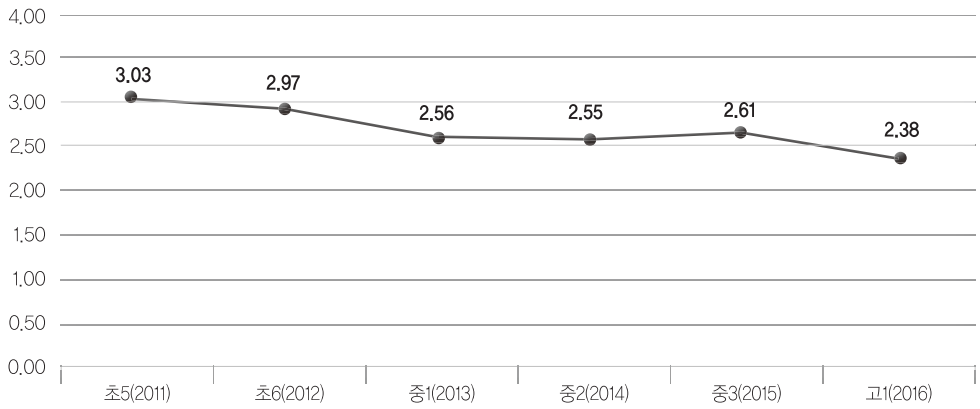


그림 2 학업 성적에 대한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 학업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초등학교 5학년 때 3.03으로 대체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동일 학교 급에서 학년이 바뀔 때 성적만족도는 0.1 미만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학교 급이 바뀌는 경우 성적만족도의 감소폭은 큰 것으로 나타남. 초등학교 6학년(2.97)에서 중학교 1학년(2.56)으로 올라가면서 0.41 감소하였고, 중학교 3학년(2.61)에서 고등학교 1학년(2.38) 올라가면서 0.23 감소함.
- 성별에 따른 전체 성적만족도 변화의 정도는 표 2와 같음. 초등학교 5, 6학년 시기의 남자의 성적만족도는 3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 때 2.98로 3점 미만으로 나타남.

표 2 학업 성적에 대한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구분	2차 (2011년)	3차 (2012년)	4차 (2013년)	5차 (2014년)	6차 (2015년)	7차 (2016년)
남자	3.07 (0.76)	3.03 (0.75)	2.61 (0.79)	2.59 (0.79)	2.63 (0.78)	2.43 (0.79)
여자	2.98 (0.71)	2.89 (0.73)	2.50 (0.74)	2.51 (0.75)	2.59 (0.71)	2.33 (0.73)
전체	3.03 (0.74)	2.97 (0.74)	2.56 (0.77)	2.55 (0.77)	2.61 (0.75)	2.38 (0.76)

*주: ()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 남자와 여자 모두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성적 만족도가 크게 감소함. 남자는 0.42(초6: 3.03, 중1: 2.61), 여자는 0.39(초6: 2.89, 중1: 2.50)만큼 감소함. 그 다음으로 크게 감소한 시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로

남자는 0.20(중3: 2.63, 고1: 2.43), 여자는 0.26(중3: 2.59, 고1: 2.33)만큼 감소함.

- 남자는 중학교 3학년 때 성적 만족도가 증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으며, 여자는 중학교 때 성적만족도가 0.01(중1: 2.50, 중2: 2.51), 0.08(중2: 2.51, 중3: 2.59) 증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6 청소년 삶에 대한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 측정은 '학생이 현재 자신의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 3개를 제시하였음. 4점 척도(1: 매우 그렇다~4: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역코딩(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진행함.
- 차수별로 3문항의 신뢰도가 높았으므로(0.80이상) 3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 1차(2010년), 2차(2011년), 3차(2012년), 4차(2013년), 5차(2014년), 6차(2015년), 7차(2016년)에 측정된 초4 패널의 삶에 대한 만족도 변화는 그림3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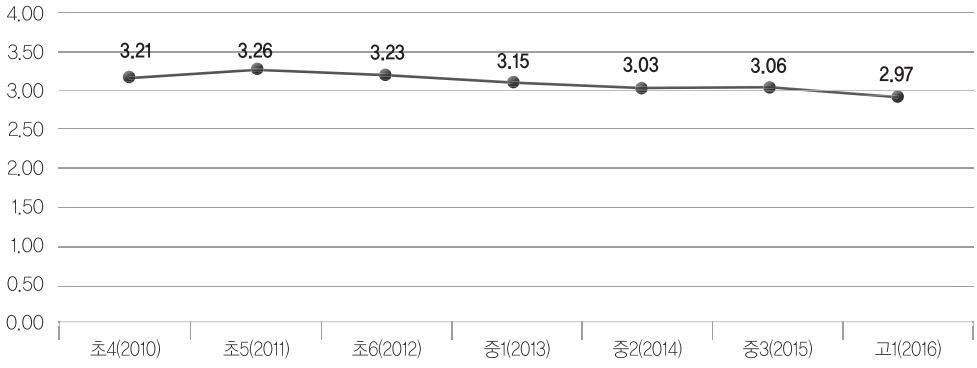


그림 3 삶에 대한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 삶의 만족도는 초등학교 5학년 때 3.2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6학년(3.23), 초등학교 4학년(3.21)의 순으로 나타남. 초등학교 5학년 이후 삶의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삶의 만족도는 3점대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고등학교 입학 이후 삶의 만족도는 2.97로 3점미만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표 3과 같음.

표 3 삶에 대한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구분	1차 (2010년)	2차 (2011년)	3차 (2012년)	4차 (2013년)	5차 (2014년)	6차 (2015년)	7차 (2016년)
남자	3.21 (0.69)	3.30 (0.63)	3.35 (0.64)	3.29 (0.60)	3.11 (0.60)	3.15 (0.62)	3.05 (0.61)
여자	3.21 (0.71)	3.21 (0.63)	3.10 (0.67)	3.01 (0.63)	2.94 (0.56)	2.97 (0.58)	2.88 (0.57)
전체	3.21 (0.70)	3.26 (0.63)	3.23 (0.67)	3.15 (0.63)	3.03 (0.59)	3.06 (0.61)	2.97 (0.60)

*주: ()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 7년 동안 남자의 삶의 만족도는 3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나 매해 변화를 살펴보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남. 7년 동안 여자의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 나타남. 특히 중학교 2학년(2.94)때부터 삶의 만족도가 3점미만으로 나타남.

7 학습습관 통제능력과 성적 만족도

- 본 연구에서 성적 만족도를 측정할 때에 사용한 4점 척도(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그렇지 않다)를 토대로, 1점(매우 그렇다)과 2점(그런 편이다)을 '1'로 코딩 하여 성적에 만족한 집단으로 구분하고, 3점(그렇지 않은 편이다)과 4점(전혀 그렇지 않다)을 '0'으로 코딩하여 성적에 불만족한 집단으로 설정함. 이를 바탕으로 성적에 대해 만족한 집단, 불만족한 집단 간 차이를 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여 학습습관 통제능력의 평균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 학습습관 통제능력과 성적 만족도가 동일한 시기에 측정된 차수는 3차, 5차, 6차, 7차 이므로 이 시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차수별로 분석을 실시함. 3차 년도는 초6, 5차 년도는 중2, 6차 년도는 중3, 7차 년도는 고1에 해당함.
-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음.

표 4 성적 만족/불만족 집단의 학습습관 통제능력 차이 검증

	성적 만족 집단	성적 불만족 집단	t	평균 차이
3차(초6)	2.77 (.53) n=1,712	2.52 (.53) n=499	−9.261***	.25
5차(중2)	2.69 (.54) n=1,101	2.40 (.48) n=967	−12.897***	.29
6차(중3)	2.69 (.55) n=1,177	2.41 (.47) n=881	−12.774***	.28
7차(고1)	2.67 (.55) n=817	2.44 (.52) n=1,148	−9.595***	.23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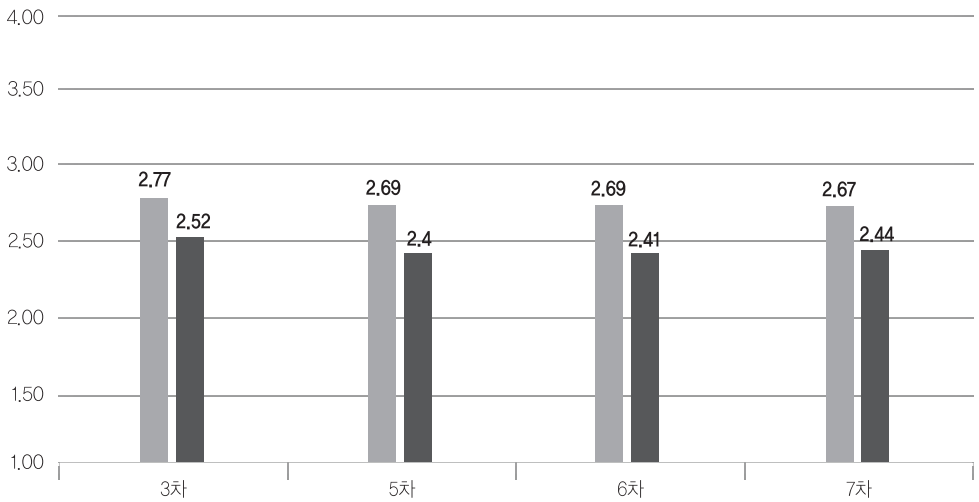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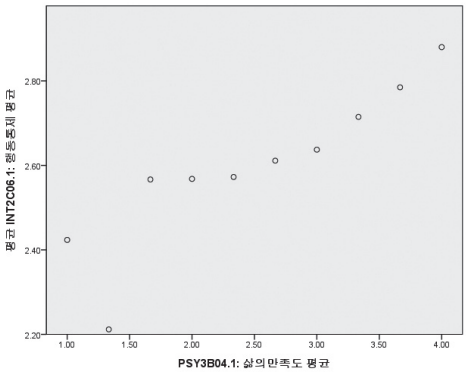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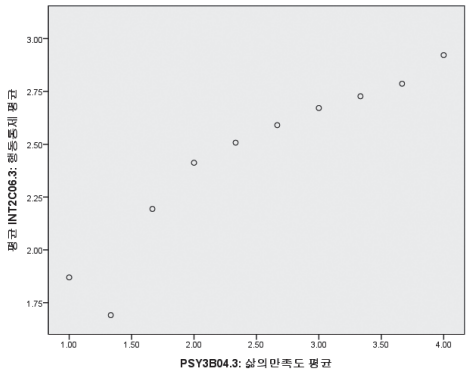
그림 4 성적 만족집단과 불만족 집단의 학습습관 통제능력 평균 차이

- 분석 결과, 3차, 5차, 6차, 7차 데이터 모두 성적을 만족한 집단이 성적을 불만족한 집단보다 학습습관 관련 행동통제 능력의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학습습관 통제능력이 좋은 학생들이 성적에 만족한 경향을 보이며 학습습관 통제능력이 낮은 학생들이 성적에 불만족한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음. 또한 성적에 만족하는 학생들이 학습습관 통제능력이 우수하며 성적에 만족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습습관 통제능력이 덜 우수한 것으로 해석이 모두 가능함. 즉, 두 변인 중 무엇이 원인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확증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추후 연구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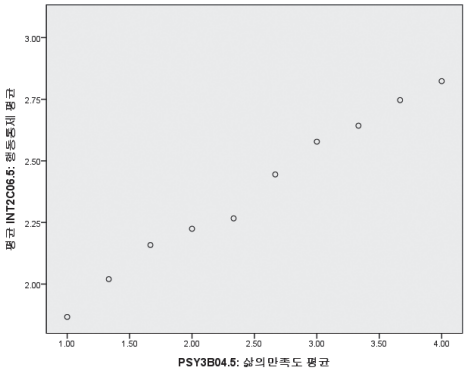
8 학습습관 통제능력과 삶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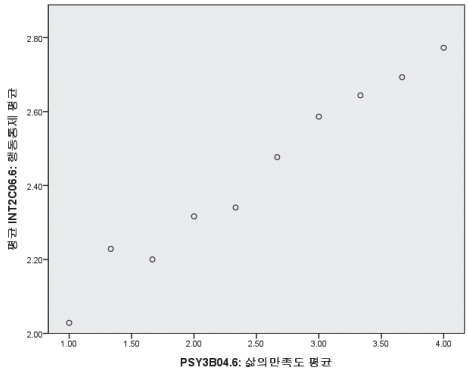
1차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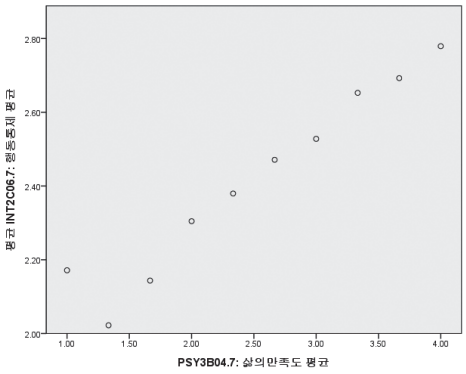
3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그림 5 학습습관 통제능력과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 산점도

- 삶의 만족도 평균과 학습습관 통제능력 평균값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산점도는 그림 5와 같음. 각 변인이 모두 조사된 1차, 3차, 5차, 6차, 7차의 산점도를 확인한 결과 삶의 만족도와 학습습관 통제능력은 양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Pearson 상관계수 결과는 표 5와 같음.

표 5 학습습관 통제능력과 삶의 만족도 상관관계

행동통제 1차와 삶의 만족도 1차의 상관관계	행동통제 3차와 삶의 만족도 3차의 상관관계	행동통제 5차와 삶의 만족도 5차의 상관관계	행동통제 6차와 삶의 만족도 6차의 상관관계	행동통제 7차와 삶의 만족도 7차의 상관관계
.385*** (n= 2,375)	.347*** (n= 2,214)	.340*** (n= 2,068)	.268*** (n= 2,061)	.268*** (n= 1,979)

(***p 〈 .001)

- 분석결과, 1차, 3차, 5차, 6차, 7차 모두 학습습관 통제능력과 삶에 대한 만족감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됨. 상관계수가 0.2~0.4의 경우 보통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로 해석되므로(Rea & Parker, 2005), 학습습관 통제능력과 삶에 대한 만족감은 보통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9 학습습관 통제능력과 삶의 행복

- 위 결과를 토대로, 삶의 만족도 문항 3가지 중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을 선택하여 (1: 매우 그렇다~4: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과 2점(그런 편이다)을 '1'로 코딩 하여 행복한 집단으로, 3점(그렇지 않은 편이다)과 4점(전혀 그렇지 않다)을 '0'으로 코딩하여 행복하지 않은 집단으로 설정함. 이에 행복한 집단과 행복하지 않은 집단 간 차이를 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여 학습습관 행동통제 능력의 평균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 학습습관 통제능력과 행복 측정 문항이 동일한 시기에 측정된 차수는 1차, 3차, 5차, 6차, 7차 이므로 이 시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차수별로 분석을 실시함. 1차년도는 초4, 3차년도는 초6, 5차년도는 중2, 6차년도는 중3, 7차년도는 고1에 해당함.

-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음.

표 6 행복/행복하지 않은 집단의 학습습관 통제능력 차이 검증

	성적 만족 집단	성적 불만족 집단	t	평균 차이
1차(초4)	2.91 (.55) n = 2,041	2.49 (.57) n = 334	−12.540***	.42
3차(초6)	2.76 (.52) n = 1,958	2.35 (.55) n = 257	−12.019***	.41
5차(중2)	2.60 (.52) n = 1,825	2.23 (.51) n = 243	−10.258***	.37
6차(중3)	2.61 (.53) n = 1,839	2.27 (.49) n = 222	−8.956***	.34
7차(고1)	2.57 (.53) n = 1,730	2.27 (.55) n = 249	−8.133***	.30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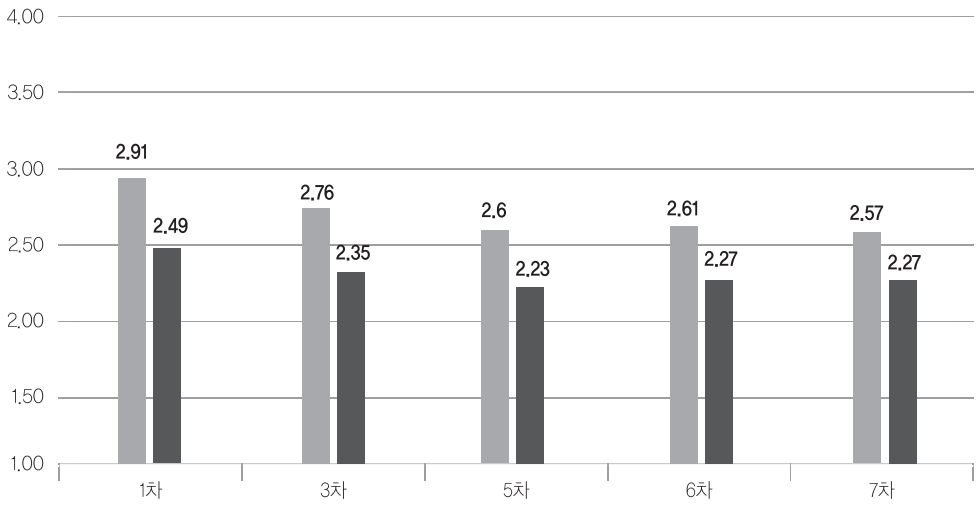


그림 6 행복/행복하지 않은 집단의 학습습관 통제능력 평균 차이

분석 결과, 1차, 3차, 5차, 6차, 7차 데이터 모두 행복한 집단이 행복하지 않은 집단 보다 학습습관 통제능력의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학습습관 통제능력이 좋은 학생들이 행복한 경향을 보이며 학습습관 통제능력이 낮은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음. 또한 행복한 학생들이 학습습관 통제능력이 우수하며 행복하지 않은 학생들은 학습습관 통제능력이 덜 우수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즉, 두 변인 중 무엇이 원인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확증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추후 연구가 필요함.

10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청소년의 학습습관 행동통제능력, 성적에 대한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의 변화추이를 살핀 결과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학습습관 행동통제능력은 초4, 초6, 중2, 중3, 고1 시기 동안 점차적인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남.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시기 동안의 변화를 살피었을 때 중3때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특히 학교급이 변화할 때(초등학교 → 중학교, 중학교 → 고등학교) 큰 폭으로 감소함. 삶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초4~고1까지 매년 확인한 결과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 역시 학교급이 변할 때 큰 감소폭을 보임.

- 학습습관 통제능력이 성적에 대한 만족감과 연관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적에 대해 만족한 집단과 불만족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학습습관 행동통제능력의 평균값에 차이가 있는지 t-검증을 실시함.

  - 두 변인이 모두 측정이 된 3차, 5차, 6차, 7차년도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학업 성적에 만족한 집단이 불만족한 집단보다 학습습관 통제능력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성적에 만족한 학생들이 학습습관 통제능력이 우수한 것인지, 혹은 학습습관 통제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것인지 그 인관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으나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습습관 통제능력이 우수한 아이들이 학업 성적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함.

- 학습습관 통제능력과 삶에 대한 만족감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한 결과, 두 변인이 모두 측정된 1차, 3차, 5차, 6차, 7차 데이터를 각 활용하여 분석했을 때 모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학습습관 통제능력이 높은 청소년들이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게 느끼고 있으며,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청소년들이 학습습관 통제능력 역시 높은 수준으로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 분석 또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한 것은 아니지만, 두 변인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추가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감을 측정한 문항 중 행복 관련 문항을 선별하여, 행복한 집단과 행복하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학습습관 행동통제 능력 평균값에 차이가 있는지 t-검증을 실시함.

- 두 변인이 모두 측정이 된 1차, 3차, 5차, 6차, 7차년도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행복한 집단이 행복하지 않은 집단보다 학습습관 통제능력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행복한 학생들이 학습습관 통제능력이 우수한 것인지, 혹은 학습습관 통제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행복한 것인지 그 인관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음.

■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학습습관 통제능력이 그들의 성적에 대한 만족감 및 삶에 대한 만족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에 대한민국 청소년이 그들의 학업과 삶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그들의 학습습관 통제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자 함.

■ 청소년들의 학습습관 통제능력 향상을 위해 가정 내 학교 내에서 부모와 선생님들의 관심이 필요함. 청소년들의 통제능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활동은 무엇이며 어떠한 환경이 제공될 필요가 있는 지 밝히는 것은 새로운 연구 분야이며 추후 연구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음.

- 청소년에게 '공부해라' '행복을 찾아라'와 같은 명령이 아닌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학업에 만족할 수 있고 삶에 대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적 측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청소년들이 스스로 삶을 결정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게끔 느끼게 해 주는 부모의 양육 방식, 학교 내 교사들의 교육 방식, 다양한 청소년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적극 지원해 주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함.

참고문헌

Duckworth, A., & Gross, J. J. (2014). Self-control and grit: Related but separable determinants of succes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3(5), 319-325.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Duckworth, A. L., & Seligman, M. E. (2005). Self-discipline outdoes IQ in predicting academic performance of adolescents. Psychological science, 16(12), 939-944.

Fiori, K. L., Brown, E. E., Cortina, K. S., & Antonucci, T. C. (2006). Locus of control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sity and life satisfaction: Age, race, and gender differences. Mental Health, Religion and Culture, 9(3), 239-263.

Mirowsky, J., & Ross, C. E. (2003). Education, Social Status, and Health. Series Titles: Social institutions and social change. Hawthorne, NY: Aldine de Gruyter.

Moffitt, T. E., Arseneault, L., Belsky, D., Dickson, N., Hancox, R. J., Harrington, H., ... & Sears, M. R. (2011). A gradient of childhood self-control predicts health, wealth, and public safety.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8(7), 2693-2698.

Ng, T. W., Sorensen, K. L., & Eby, L. T. (2006). Locus of control at work: a meta-analysi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7(8), 1057-1087.

Phares, E. J. (1976). Locus of control in personality. Morristown, NJ: General Learning Press.

Presson, P. K., & Benassi, V. A. (1996). Locus of control orientation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A meta-analysi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1(1), 201-212.

Rea, L. M., & Parker, R.A. (2005). Designing & Conducting Survey Research A Comprehensive Guide (3rd Edi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ied, 80(1), 1-28.

Tangney, J. P., Baumeister, R. F., & Boone, A. L. (2004).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72(2), 271-324.

Watson, D. C. (1998). The relationship of self-esteem, locus of control, and dimensional models to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3(3), 399-420.